전창희 함평 월야농협 조합장 장관 표창 이어 '파워조합장'에

함평 월야농협 전창희〈사진〉 조합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장을 받은데 이어 농가 실익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파워조합장'에 꼽혔다.

전 조합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친환경비료 연찬회'에서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월야농협은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사업소로 선정, 올해 친환경비료 공급을 위한 농가지원 사업을 펼쳤다. 또 직파재배를 통해 친환경비료 사용을 늘려 공급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 조합장은 또 농가 실익제고에 힘쓴 전국 농·축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대한민국 파워조합장'에 선정됐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축산물 매출 증대를 위해 마트에서는 처음으로 공영홈쇼핑에 나서 '3회 연속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4억 600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전 조합장의 사례는 다른 67명의 조합장과 함께 사례집을 통해 발간될 예정이다.

전창희 조합장은 "합병 권고 위기와 거액적자 조합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2년을 보내왔다"며 "이제는 정상을 향해 나아갈 시기다. 조합원들을 위해 직무에 충실한 조합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김명군 금호주택 대표 장학금 1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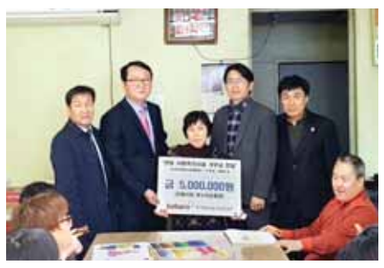
(주)금호주택(대표이사 김명군·사진 왼쪽 네번째)는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청(청장 송광운·가운데)을 방문해 (재)광주북구장학회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금호주택은 2004년 설립돼 건설, 건축,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펼치며 지역 내 주택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김 대표이사는 최근 광주대와 동강대에 각 1000만원, 모교인 광주석산고와 전남대에 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을 잇달아 후원했다. 올 한해만 각종 단체에 1억 4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명군 대표는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지역 사회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방송광고진흥공사, 복지시설 500만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광주지사장 오동근, 이하 코바코)는 최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 행사는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애일의 집', '우리이웃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등 지역 장애인시설과 어린이보호시설인 '신애원' 등 3곳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광고를 통해 국가경제와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코바코는 매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

"통기타 카페거리 활성화 위해 상인들이 음반 냈어요"

'사직길 연가' 제작한 광주 사직통기타거리 상인협 김태준 대표

9개 업소 참여 총 9곡 수록
포크 음악에 색소폰·피아노 등 뮤지션 개성 담아 2000장 발매
"손님들에 옛 추억 선사할 것"

"전국 유일 통기타 라이브 카페거리인 '광주사직통기타거리'의 상인들이 모여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광주사직통기타거리 내 라이브카페 상인 뮤지션들이 음악앨범 '사직길 연가'를 선보여 화제다.

김태준 사직통기타거리 상인협의체 대표는 "광주의 오리지널 뮤지션들이 모여 음반을 만들었다"며 "이번 음반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해 사직공원에 자리 잡은 광주 뮤지션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직길 연가' 앨범제작 프로젝트는 광주사직 통기타거리추진협의체가 통기타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의 음반제작 지원사업비 일부를 받아 추진했다. 이번 앨범 제작은 지난가을부터 약 2~3달 동안 진행됐으며 지역에서 활발하게 음악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 오영묵씨가 프로듀서를 맡았다.

총 9곡이 수록된 앨범은 상인 뮤지션들의 자작곡과 지역음악인들의 곡들로 구성돼있다.

김 대표는 "혼자서는 음반을 내기 어려웠겠지만 상인 뮤지션들이 힘을 모아 가능했던 일이다"며 "참여자들 모두 각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앨범 제작에는 사직골, 산울림, 설화, 트윈폴리오, 햇빛촌, 뭉게구름, 노래발자국, 음악의 마을, 카사비앙카 등 9개 매장이 참여했다. 이번 앨범은 기본적인 포크 음악에 색소폰, 피아노 연주 등 다양한 음악적 형식으로 각 뮤지션들의 개성을 담아 2000여 장이 발매됐다.

녹음중인 김태준 광주사직통기타거리 상인협의체 대표.

햇빛촌 박종태씨는 고(故)이장순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충장로의 밤'을 리메이크 한 '빈 수레 인생'을 선보였고, 뭉게구름 정영보씨가 직접 쓴 가사에 한보리씨가 곡을 붙인 '사직골 연가' 등도 앨범 구성을 풍성하게 했다.

이밖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보고 싶은 사람아', '들국화', '작은 하늘', '눈 돌리지 마', '마량 내 사랑', '가을 가을 가을'등이 담겼다.

김 대표는 "잔잔한 포크 음악을 들으면 잊고 살았던 추억의 감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골 손님들에게 작은 선물로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1980년대 광주 포크 음악의 중심지였던 광주 사직 통기타거리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남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앨범까지 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앨범을 듣고 옛날을 떠올리고 추억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나눔 캠페인 성금 1억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가운데)이 28일 '희망 2018 나눔캠페인'에 성금 1억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흥건설 제공〉

중흥건설은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이 희망 2018나눔캠페인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은 지난달 27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전달식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며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기에 중흥그룹도 지속적인 기부문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흥그룹의 정창선 회장과 안양님 감사, 정원주 사장, 이화진씨 등 가족은 지난해 광주 최초 가족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이권수 고운건설 대표이사 건설업 윤리경영 대상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고운건설(주)(대표이사 이권수·사진)이 '2017년 건설업 윤리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윤리경영대상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체를 발굴해 그 사례를 확산하고 업계에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등의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운건설은 윤리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신념으로 전 임·직원이 '협력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그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에 서명해 윤리경영을 실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권수 고운건설 회장은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안전과 품질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윤리행위 예방과 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를 이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박철홍 골드클래스 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후원 1억 쾌척

어려운 형편의 독립운동가 안중근 유족에게 집 한 채를 기부하고 싶었지만, 유족의 고사에 연세대에 1억 원을 쾌척한 이가 있다. 광주에서 중견건설업체를 경영하는 박철홍 골드클래스 회장(사진)은 최근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 연세대에 1억원을 기탁했다.

동아일보(28일자 기사)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여름 '안중근家의 두 아픔'이라는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칼럼을 보고 유족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고인의 올곧은 자세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에서 외부의 도움을 거절했다.

지난달 22일 연세대에서 처음으로 박 회장과 유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집'이나 '기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에 유족 측은 "귀한 마음을 이미 감사히 받았으니 집은 더 필요한 분에게 드렸으면 한다"며 박 회장의 기부를 고사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권하는 것도 유족분들게 폐가 될 것 같다"며 "그 대신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별도로 연세대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사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IDT 승진 ▲대표이사 사장 한창수 ▲ 전무 고석남 ▲ 상무 이찬성

◇금호터미널 승진 ▲대표이사 사장 김현철

◇에어서울 승진 ▲대표이사 부사장 조규영

◇아시아나에어포트 승진 ▲대표이사 전무 오근녕

◇금호리조트 승진 ▲대표이사 전무 김현일

◇금호고속 승진 ▲부사장 정희기 ▲전무 이계영 ▲〃 이송호 ▲상무 오종회 ▲〃 채형옥

◇금호건설 승진 ▲부사장 이동학 ▲전무 양성용 ▲〃 조완석 ▲상무 문왕현 ▲〃 박한철 ▲〃 서원상 ▲〃 최종원 ▲〃 최준희

◇아시아나항공 승진 ▲부사장 김광석 ▲전무 기철 ▲〃 김영헌 ▲상무 김광석 ▲〃 김광현 ▲〃 안효경 ▲〃 오윤규 ▲〃 이강현 ▲〃 최재국

◇에어부산 승진 ▲상무 김재수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승진 ▲전무 서현재

◇T&1 승진 ▲상무 이관형

◇AH 승진 ▲상무 장회식

◇KR 승진 ▲상무 이상현

◇KO 승진 ▲상무 선종록

◇AO 승진 ▲상무 박정교

◇STM 승진 ▲상무 김성철

◇KI 승진 ▲상무 남경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목포고등학교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종) 월례회=1월 5일(금) 오후1시 금남로2가 구 동구청 뒤 이가회관 062-224-1541.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부음

▲박옥주씨 별세 하백호·순호·윤호·수호·철호(광주일보 출판부 국장)씨 모친상=발인 29(금) 그린장례식장 062-250-4455.

▲김양례씨 별세 오종열·세열·영순·성은·정숙씨 모친상 임점희·김금숙씨 시모상 이웅규·김선진·이성경씨 빙모상=발인 29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401호 故정봉연 님(여/94세)	402호 故고순애 님(여/86세)
子/子婦 : /이진숙, 위성흔/이주영	子/子婦 : 최동률/김순덕, 동희/양희은, 동하/민인영
女 : 위근숙	女/壻 : 최동이/홍진
孫 : 위인복, 정복	孫 : 최진영, 진희, 최영석, 최우희, 홍균성, 균영
•발 인 : 12월 30일	•발 인 : 12월 30일
•장 지 : 장흥 관산 선영 •연락처 : 227-4383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전유순 님(여/65세)	**102호 故이형섭 님(남/91세)**
子/子婦 : 김동길/오미희, 김동준/남동숙	子/子婦 : 이경국/조윤희, 경만/문영란
女/壻 : 김혜미/윤준후	女/壻 : 이경숙/서영수, 경희/유창훈
	孫 : 이경민, 이희영, 희민, 서민수, 민영, 유강인
•발 인 : 12월 29일	•발 인 : 12월 30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000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대표이사 구제길
062·227·4000
www.mykumho.com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9일(음 11월 12일 庚寅)

子 48년생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시도해 보라. 60년생 쌓아 올리다보면 완성된다. 72년생 평소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84년생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발언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9, 82

丑 49년생 처음에는 상심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용기백배 하리라. 61년생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73년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에 주목하자. 85년생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뤄야만 시의적절한 판세를 이루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3, 11

寅 50년생 순환하면서 상생의 기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62년생 자신이 기대하여 왔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4년생 주의를 다 한다면 무탈하리라. 86년생 완전히 뒤바뀔 수다. 행운의 숫자 : 92, 54

卯 51년생 전체가 매우 귀중하다고 볼 수 있으니 여과 없이 참고함이 나을 것이다. 63년생 역량을 강화하자. 75년생 예상했던 구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하게 전개될 수이다. 87년생 머지않아서 곧 표면으로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84, 73

辰 52년생 혼란이 따르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64년생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비전이 보인다. 76년생 남과 비교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다. 88년생 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수다. 행운의 숫자 : 42, 86

巳 53년생 주어진 여건에 불만을 갖지 말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5년생 실속이 있어야 한다. 77년생 전과 똑 같다. 89년생 현재는 하찮더라도 장래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9, 53

午 42년생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54년생 불완전한 구상은 실패를 이끄는 실마리가 될 뿐이다. 66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때가 되었다. 78년생 지금 손을 써야 한다. 90년생 이익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는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79, 57

未 43년생 당연시 해왔던 바에 변수가 생긴다. 55년생 어중간하다면 아예 하지 않음만 못하다. 67년생 애매한 국면에 놓여 있으면 굳이 실행할 필요 없다. 79년생 절제하라. 91년생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59

申 44년생 길조가 넓은 국면으로 확대 되어가는 형상이다. 56년생 탁월한 기법의 활용이 가치를 드높일 것이다. 68년생 웃음꽃이 만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 80년생 끈질기게 밀고 나간다면 분명한 승산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4, 05

酉 45년생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57년생 비로소 실효성을 획득하게 된다. 69년생 순간적인 격정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81년생 편의에 치우친다면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7, 62

戌 46년생 불쾌와 기쁨이 더불어서 올 수이니 반길반흉이로다. 58년생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시기가 중하다. 70년생 반복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82년생 상대의 의중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3, 60

亥 47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59년생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도 무리는 없겠다. 71년생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햇볕이 내리쬐고 있으니 흠뻑 흡수하고 제대로 활용하자. 83년생 성공의 길은 힘들고 험하다는 것을 알자. 행운의 숫자 : 95, 1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